



문화매일신문



제 1525호

2024 / 1 / 29 / Mon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포천 찾은 김동연 “대한민국 미래성장 먹거리의 원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있다”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포천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포천시를 찾아 2024년에도 흔들림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포천의 미래와 북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연초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북부 시군 방문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의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엄청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단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북부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먹거리를 만드는 원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여야 간에 당의 차이와 이념 차이 없이 힘을 합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까지 왔던 길은 험수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2부 능선을 넘기까지의 좋은 자산과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뤄진다.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포천시편’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시·도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포천시 시민추진단의 결의문 낭독과 발대식 등 시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이 큰 주목을 끌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경기북

부특별자치도 새이름 공모전에 대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에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새이름 심사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워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미래상을 담은 참신한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 앞서 포천에서 북부지역 청년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상/기자



경북도「저출생 극복TF」출범... 전략상황실 본격 가동

이철우 도지사,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아는 지방에서 기획·집행을 주도, 경북에서 저출생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 현판을 다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10시, 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형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모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안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

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비전 등도 내용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수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형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사회적경제 성장 전략 전문가 머리 맞대

순천시 정부 정책 방향·타 시도 현황 등 공유하며 의견 수렴

전라남도는 26일 순천부 음성 남문터광장 다목적 강의실에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에는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과 이재태·한숙경 전남도의원, 이창환 전남사회적기업협회장, 류세택 전남자활기업협의회장, 구영주 남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조일한 고용노동부 사무관의 정부 정책방향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의 정책 추진 현황 공유,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장과 김영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평화 이사장의 정책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일한 사무관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사회적가치 평가와 정부 지원을 연계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 정부 직접지원을 민간 판로 확대,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김홍길 과장은 정부 지원 축소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가치 측정 등 경기도 정책을 공유, 전남도와 함께 지자체 공동 협력 대응을 약속했다.

고진석 협의회장은 정부 육성 지원 예산이 삭감된 만큼 사회적기업의 자발적 연대와 협업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관련 신규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 사회적기업 이익잉여금 중심 자조 금융 신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성과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편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에서 김영제 이사장은 전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및 지원제도의 지속 보완 ▲협동조합 모범사례 포상 등 홍보 지원 ▲협동조합 간 연대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을 통해 전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날 나온 의견을 4월 완료 예정인 ‘제3차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전남 지역 사회적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전남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도약하도록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의회

신호광 도의원, 과수농가 보호를 위한 사과수입 추진 중단 촉구

전국 60% 최대 주산지.. 경북도지사가 도 과수농업인 대변 나서야
수입피해 추정액 5,980억.. 과수산업 전체 도미노적 피해 입을 것



경북북도의회 신호광 의원(청송, 국 민의원)은 1월 25일 제344회 임시

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철우 도지사가 사과수입 추진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호광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어렵게 지켜낸 사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과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할 물량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사과재배 농가는 지난해 4~5월 냉해, 6월에 발생한 과수화상병, 여름철 장마와 폭염, 9월 추석을 앞두고 주산지의 탄저병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수확기를 앞

둔 지난 10월에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쳐 도내 사과 생산량과 출하량은 대폭 감소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과 수입이 허용됐을 경우 연간 피해액이 4,080억 원에 이르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5,98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호광 의원은 "사과시장 개방은 단감과 배 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미쳐 과수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사과수입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무너져 외국산 사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하고,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환영

1,700만 영호남인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25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함을 열렬히 환영한다. 영호남인들의 염원과 기대속에 추진된 이 법안이 1월 국회에서 계류할 때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회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소명감과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건의로 발표 등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하여 씁쓸이 노력해 왔으며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자, 동서 장벽을 뛰어넘어 영호남 상생을 이룰 대표

적인 균형발전 모델이다. 앞으로 달빛철도 건설과 대구경북 신공항이 함께 개항되면 그 역량과 시너지는 극대화될 것이며, 활발한 인적·경제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되어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간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홍준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지역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의 노력에 24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대구·광주광역시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 '부산수학문화관' 현장방문 나서

초·중등 수학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계 최대 규모 부산수학문화관 방문
전시콘텐츠와 연계한 수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필요

29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를 앞두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정철)는 26일 오전 '부산수학문화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학문화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과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부산수학문화관'은 2022년 12월에 개관하였으며, 수학놀이관, 진로탐색관, 교과체험관, 역사지혜관 등 4개의 전시관과 강의실, 수학교서관 등의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단체 관람객 11,823명, 자유관람객 63,275명으로 부산수학문화관 전체 관람객 수가 2023년 한 해에만 75,098명이다.

부산수학문화관은 초·중등 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수학교육에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KRI(Korea Record Institute, 한국기록원)와 미국 WRC(World Record Committee,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수학 단일주제 최대규모 건축물(The largest museum on the single subject of mathematics)'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서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학교급별 수학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 등을 청취했다.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SW·AI 교육의



기초 학문은 바로 수학이며, 수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상반

기 업무보고 심사는 29일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실시된다.

김희태/기자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 대왕암공원 활성화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왕암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구의회 임채운 의원, 지역주민, 시 관광과·녹지공원과, 동구 공원녹지과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및 짚라인 설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공원 정비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김수종 의원은 "대왕암공원은 1962년 공원으로 지정된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2021년 7월 개통한 출렁다리 등의 경우 2023년 12월말 기준 약 320만명이 방문했으며, 외국인 방문객이 비율이 63%에 이르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대왕암공원을 만들기 위한 해상케이블카(L=1.5km)와 짚라인(L=0.94km)이 202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에 있다"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해상케이블카 등 시설 준공에 맞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교통체계 마련 등 기반 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운 동구의원은 "해상케이블카 등 설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안전문제와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공사 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왕암공원 관광 활성화를 동구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울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며, "주민 일대 주차장 조성, 대중교통 연계, 교통 체증 대책 수립 등 울산시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왕암공원에 ▲ 맨발로 걷는 황톳길 등 체험 공간 조성, ▲ 방문객이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코너(거리) 운영, ▲ 공원 내 방치되고 있는 교육연수원 철거 또는 활용 방안 마련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관광도시로서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동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종 의원은 "대왕암공원이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것은 물론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송림군락지, 해안 돌레길과 체육시설 보수, 계절별 초화(유채, 코스모스 등)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상케이블카 및 짚라인 시설 공사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만큼 공사기간 중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규진/기자

육정미 의원, 시교육청 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교육위 통과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6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

취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고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영 금고

는 4조 850억 원 규모로 약정기간은 4년이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 기준에 '탈세단 선연 실적'을 포함시켜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밀착행보

22일 유기동물 보호소 및 가로등·보안등 자재보관창고 방문, 관리실태 점검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현장 밀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금광연·최홍준·박선미·오승철·오지연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와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보관창고를 각각 방문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미사동 487-7번지 소재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유기동물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

소)는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등을 갖춘 352.6㎡ 시설 규모로, 현재 위탁업체 재단법인 안스가 개 54두, 고양이 1두를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유기견 놀이터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건의하고 초과 사육두수에 대한 대책과 초과 사육 중대형견의 인도적 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창우동 50번지에 소재한 하남시 도로관리과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보관창고'를 찾아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 구입 현황, 관리대장과 실 재고량 일치 확인

및 사용현황과 잔량확인 등 철저한 재고 관리를 당부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원사항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에서 의원들과 함께 다 같이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광연 위원장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서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최근 동물 유기와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남도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과 유기동물의 생존권 보호, 입양 활성화 및 인도적 처리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기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문화부:내선(116) 사회부:내선(113) 부동산부:내선(117) 경제부:내선(114) 오키니언부:내선(118) 광고:1899.9659 스포츠부:내선(115) 지방부:내선(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주시 수상센터, 심폐소생술(CPR) 교육 프로그램 무료 운영

'이태원 참사'로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 부각

여주도시공사 여주시수상센터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왔을 때 인위적으로 혈액을 뇌로 순환시켜 호흡을 돕는 치료법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4분(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주시수상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2021년부터는 여주시체육회 및 가맹단체, 일반인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시행해왔다.

2023년 10월 여주세종대왕배 전국축구대회를 앞두고 여주시축구협회 임원 및 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여주도시공사 임명진 사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며 금은모래 캠핑장과 한글시장 주차장에서도 직원들이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여 재난,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스타필드 수원, '상생의 아이콘' 되길 바란다"

스타필드 수원, 1월 26일 그랜드 오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스타필드 수원이 '상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스타필드 수원 그랜드 오픈식 참석차 이재준 시장은 "스타필드 수원은 수원시민을 위한 일자리 3000개를 만들고,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보증기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지역상생 행보를 해 왔다"며 "그동안 잘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지역상생의 아이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자"며 "수원시와 스타필드 수원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책을 수립하자"고 말했다.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오픈식에는 이재준 시장,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상수 장안구청장,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 송철재 회장,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종민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지속해서 상생 활동을 이어나가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픈식 후 이재준 시장은 임영록 대

표와 함께 스타필드 수원 시설을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지하 2층 주차관제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수원시는 스타필드 수원 주차관제실에 수원시 교통정책과 공직자 2명을 배치했다.

이재준 시장은 "개점 후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타필드는 주차면 6557면을 쇼핑몰과 인근 공공시설 부지에 확보했다. 서버버스를 운영하고, 교통혼잡이 예

상되는 33개 지점에 모범운전사를 배치하는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6개소에는 스마트제어 교통 설비를 설치했다.

수원시는 오픈 초기에 주차관제실에 공직자를 배치하고, 수원시 교통 CCTV를 스타필드 수원 교통통제실과 공유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 수원은 지하 8층-지상 8층 전체면적 33만 1000㎡ 규모다. 주차장에 45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설 연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321개소의 주·정차 단속을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유예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



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기존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 광주역세권, 송정동 마을, 경안배수펌프장, 양벌동)를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김범상/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중원구 새해 인사회서 1000여 명 시민과 직접 소통

시민들께 큰절 올리며 시작해 동별 건의 사항 듣고 답변하는 시간 가져

신상진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2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중원구)'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동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매서운 한파에도 새해 인사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새해 인사회를 찾아주시는 시민들께 큰절을 올렸다. 이후 "성남의 새로운 50년의 첫해로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주요 핵심 시정 현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핵심 시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장기화로 발생하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에 신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 "상대원1동 한일시멘트 공장이 외벽을 쌓아 소음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의 출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신 시장은 "공장 이전 대체부지가 없어 아쉽다"라며 "사업장의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수시로 하고 회사 책임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남동 모란오거리 노숙인 문제 해결과 불법 쓰레기 정비 건의에 대해 신 시장은 "순찰 활동을 강화해

노숙인 시설 입소를 설득·계도하고 모란오거리 환경 정비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은행1동·금광2동 이면도로 열선 설치 ▲상대원 2동 주차 공간 부족 ▲하대원 마지로 CCTV 설치 등 시민의 건의에 대해 현장을 방문·검토해 신속한 해결과 지원을 당부했다.

동별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신 시장은 "현장에서 말씀하지 못한 의견이나 향후 발생하는 건의에 대해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갑) [1.29(월) 14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새해 인사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제3기 청년활동네트워크 역량강화교육 실시

이천시는 제3기 청년활동네트워크 청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3기 네트워크는 지난 11월 공개모집을 거쳐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 34명의 청년들로 구성했으며, 지난 1월 17일과 24일, 2회에 걸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한) 및 분과 구성(일자리분과, 복지분과, 문화분과) ▲청년정책 제안 능력 향상교육 ▲분과 운영 노하우 ▲분과별 의제선정 및 간단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광진 청년활동가(성동구)가 '청년에게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선진 사례 등의 예시, 청년정책 제안 교육 등을 진

행했으며, 3명의 청년활동가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분과별 의제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후 피드백을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이천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을 위한 3기 네트워크 청년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청년활동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시에 제안하는 소통기구로 매월 분과별 모임을 통해 청년정책 제안과 분과별 프로젝트 추진, 청년행사 참여 등 이천시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김범상/기자

오래된 창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고양특례시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준공

방치된 舊 일산농협창고를 일산문화예술창작소로 새롭게 단장해

고양특례시는 예전 일산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문화예술창작소의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이동한 고양시장을 비롯해 홍정민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과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및 시의원, 일산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된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1,322제곱미터(m²)의 대지 위에 연면적 약 690제곱미터(m²)의 건축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공간 구성은 공유 사무실과 회의실, 다목적 라운지, 공유 주방, 옥상정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탈바꿈한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점차 쇠퇴지역으로 변해버린 원도심 일산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했던 문화예술 수요를 채워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유오피스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 예술가들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청년 창업에 지원함으로써 젊은 창업가와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971년 양곡과 소금을 보관하기 위해 건축된 일산농협창고는 지난 50여년간 일산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 지역유산이지만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낡고 쇠락한 옛 일산지역의 상징처럼 방치된 노후 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시는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국가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일산 지역의 예전 일산농협창고를 과감하게 매입했고, 구조보강을 통해 청년들의 예술과 창업에 지원하기 위한 옥성(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노후건축물에서 활력의 상징물로

한편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준공 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시범운영을 통해 도드라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들에게 최적의 지원 및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점검한 뒤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민선8기 '시민행복'과 청년들의 예술·창업 지원에 대한 시정 방침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을 이용하는 창업가와 청년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역 인프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일산문화예술창작소가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2023년 사회조사서...지역에 대한 만족도 90.9%, 10년 후에도 거주 희망 65%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 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및 광역 교통망 구축'(42.8%)을 제일 많이 고른 것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가 미래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선 시민 대다수(7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53.5%)와 '지역 일자리 증가'(28.9%)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90세대의 표본 가구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 하에 ± 3.5% 포인트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겨 시민 대다수가 용인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 등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은 9.1%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 등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는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 37.7분, 버스 51.5분, 지하철 63.6분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기흥미래연구단지(기흥구 서농동)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58.4%)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또 '공원과 녹지, 산책로'(32.8%), '보건의료 시설'(25.6%), '공영주차시설'(22.4%) 등 공공시설이 늘어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놀러 와! 건강on캠프' 진행

지역아동센터 대상 기초검진 및 건강교육 진행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놀러 와! 건강on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on캠프는 건강 관리가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상담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구강, 금연 등의 건강교육까지 진행해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지난 19일부터 지역아동센터 7개소의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는 만안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진과 교육 등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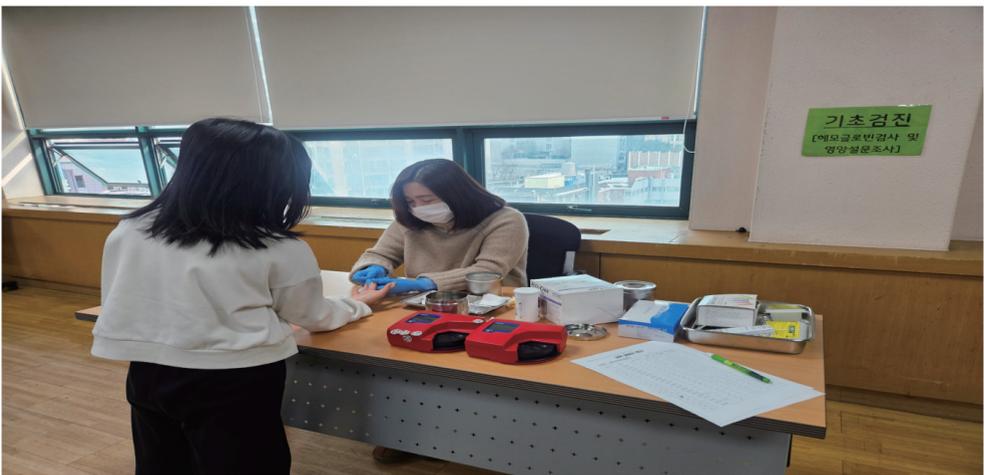
보건소에서는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비만도(체지방률, 성장 발달평가), 혈액검사, 영양지수 조사 등의 기초검진을 시행하고, 영양 예코백 만들기 활동·음주 예방 교육, 올바른 칫솔질 체험 등도 함께 실시한다.

기초검진결과서는 개별 통보하며,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기

추치 치료, 불소도포(6개월 주기) 등 구강 정기검진과 영양·신체활동 상담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은 "기초검진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비만 및 성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하계 방학 중에는 온라인 교육 및 챌린지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하남시... 청년 취업 'AI 모의 면접관'이 도와드립니다!

AI 모의면접 체험관 운영

AI 모의면접으로 취업하자!

다양한 면접 유형 문항,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AI 정밀 분석 피드백까지 스마트한 1:1 모의면접 시스템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보세요

- 이용대상: 관내 만19세~39세 구직 청년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온라인 신청) 필수 / 1일 최대 1시간 30분 / 1인당 최대 5회 신청가능)
- 이용장소: 하남시 청년해남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84, 미사탑프라자 5층)
- 이용방법: 온라인시스템 접수 후 방문 무료 이용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아바 어플리케이션/apply.jobaba.net)
- 문의처: 하남시 청년해남센터 ☎031)5182-1595,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790-6904

하남시는 이번 달 29일부터 'AI 모의 면접체험관'을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25일 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 시연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임희도 시의원, 청년특보단 노지민, 청년 제안자 김현주 씨도 참석했다.

'AI 모의면접 체험관'은 취업 준비생들의 모의 면접 체험과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해남센터 내에 운영한다.

'AI 모의 면접'은 가상면접관이 실제 면접처럼 질문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응답 내용, 핵심 어휘, 감정, 미소, 목소리 등을 분석해 평가하게 된다. 이는 실제 면접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청년들의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은 ▲AI 자기소개서(Chat GPT 활용)작성 ▲AI 모의면접 연습 ▲AI 역량분석게임 ▲AI 영상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AI 자기소개서는 지원기업, 직무, 문항을 입력하면 Chat GPT가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해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이를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한편, AI 모의면접은 다양한 면접 유형의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고, AI 기술로 분석된 리포트를 받아 개선사항을 도출해 응시자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체험관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구직을 목적으로 한 취업 준비생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사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청년해남센터로 방문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AI 모의면접 체험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청년들의 면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취업환경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 차원의 정부 지원체계 보완 사업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에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경기도 여성인권 증진 원스톱지원 정책 환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

경기도의회 이인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하여 신보라 원장과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경기도의회와의 상호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인에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 및 강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며, "1,400만명의 최대 인구 경기도의회와 상호협력적 파트너로서 정책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환담을 통해서 "양성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 대응,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 여성인권에 대한 ▲ 여성인권 증진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 여성인권 피해지원 대응역량 강화 ▲ 여성폭력 방지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에 의원은 "여성인권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경기도의회가 여성인권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원스톱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과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 찾아 제도·규정 한계로 인한 경기도의회 역차별 해결 필요성 피력

염중현 의장과 김정호·남종섭 양당 대표의원, 행안부 찾아 제도개선 건의안 전달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 기관인 경기도의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중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중현 의장과 김정호 대표의원,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방자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별첨1)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

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별첨2)에 달하면서 경기도의 역차별이 가중되고 있어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경기도의회 요구의 핵심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당장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 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중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민 대의 기관인 경기도의회 역할과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시대상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위상이 걸맞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확고히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가칭)신현1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환영

이자형 의원 "과밀학급 근본적인 해소 기대...2027년 3월 개교 차질없이 진행돼야"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신현1중학교가 지난 25일 학교설립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신현1중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한 학생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칭)신현1중은 34학급(특수 1학급 포함), 930명 학생 수용 규모로 현재 신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신현동 일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인구 증가를 이유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는 학교설립의 주요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가칭)신현1중 설립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를 위해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신현동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가칭)신현1중 설립을 환영한다"며, "특별교실까지 일반교실로 변경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로 그간 고생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이 2027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이 설립 전까지 신현중과 인근 성남지역과의 공동학구 지정·운영을 통해 신현, 능평지역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지역발전 현안 논의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과 현역 도의원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지난 25일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2024년 신년 정담회를 통해 지역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 정담회는 현역 도의원인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이인규(더민주, 동두천1) 의원을 주축으로 작년부터 개최했으며, 이번 정담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에 협력체계 구축 주문

김미리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남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의 김동진 기반기조사업장 등 공공의료원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해 의회 안팎에서 적극 노력해 온 바 있다. 2023년 9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양주 백봉지구 공공의료원을 건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균형 있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한 바 있다.

남양주시 또한 2024년부터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공의료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우선 남양주시는 2024년 1월 부로 '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산하의 기반기조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업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남양주시만의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 수립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백봉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남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계획에 대해서도 발주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남양주시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공의료원 유치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민·관·정 모두가 협력하여 한 목소리로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임산부 안전한 출산 119가 도와드려요!!

경상북도 임산부라면 '새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신청하세요 박근오 소방본부장, "우리 경북소방본부는 저출생 극복의 도정 목표 추진을 위하여 응급분만 지원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임산부들이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분만 대처로 구급현장에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포항시에서 태어난 지 20분가량 된 신생아를 태출 절단 등의 응급처치 후 산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고, 16일에는 문경시의 한 산모의 집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분만을 실시해 소중한 새 생명 탄생을 도왔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출생을 감소 극복을 위한 경북형 아이 행복 시책의 하나로 '새 생명 탄생 119 구급서비스'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산전·산후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임

산부를 전문적인 분만 처치 교육을 받은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다

119안심콜서비스 또는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과 입원, 응급진료, 이송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소, 나이, 임신 개월 수, 출산예정일 등의 사전 입력으로 긴급상황 시 119에 신고했을 때 환자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권 국가와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8개국의 13개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423명의 임산부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시행 4년 동안 119구급대원들이 37건의 응급분만 활동

을 수행했고 구급차 안에서 10명의 새 생명을 무사히 출산했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임산부 응급분만 처치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경북소방본부는 저출생 극복의 도정 목표 추진을 위하여 응급분만 지원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군민중심 사회전망 구축으로

'꼭 맞게 든든한 보편 복지 실현'으로 군민 중심의 사회전망 구축에 적극 행보 윤경희 청송군수,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복지청송, 군민의 삶이 보다 안정된 윤택한 행복 청송을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은 올해 복지시책 추진방향을 "꼭 맞게 든든한 보편 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사회보장수급가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결정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방문실태 확인 등으로 적절한 급여를 결정하고,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정비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맞춤형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인적안전망(안녕살피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구축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조직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현할 수 있도록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 IoT 장비를 통해 스마트 안부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솔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구국·호국 의지를 불태우다 산화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연금·수당·의료비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소파·입식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경로당 좌식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간다.

또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운영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보육환경 조성하고 출산 분위기 장려에도 앞장선다.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드림스타트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등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사회적응 특화 프로그램 등도 운영·지원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안도 마련했다.

끝으로 학업 향상과 재능연마에 전념하도록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와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송인재양성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며,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청송 아카데미, 행복청송 군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복지청송, 그리고 군민의 삶이 보다 안정된 윤택한 행복 청송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90개사 선정... 글로벌 기업 육성 '신호탄'

박형준 시장,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는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부산시는 부산의 9대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올해 '전략산업 선도기업' 9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략산업 선도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부산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이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9대 전략산업: ▲디지털테크 ▲미래모빌리티 ▲에너지테크 ▲융합부품소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문화관광 ▲해양 ▲금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전략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 지원해왔다.

올해 시는 도시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산업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생산성 제고, 미래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방향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총 90개사를 전략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3년 동안 전략산업 선

도기업으로 인증되며, 이번 선정을 포함해 전략산업 선도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총 281개사다.

인증기간 선도기업에는 ▲자금대출·보증우대 ▲특례보증(리딩-부산론)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 금융연계지원 ▲시제품·인증·제품 상용화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마케팅·컨설팅 등 30여 개 연계사업이 지원된다.

시는 향후 이들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히든챔피언,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등의 성장사다리 정책 선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선도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를 유치해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의 혁신 역량을 높여 글로벌허브도시로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은 오늘(26일) 오전 10시 30분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선도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신규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90개사 대표에게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산업 발전에 계속해서 노력하며 부산의 9대 전략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2024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문화예술교육 4개 공모사업 35개 단체 및 기관 선발 예정 2024. 1. 31.(수) 14:00 대구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는 2024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수) 오후 2시, 대구생활문화센터 어울림홀에서 개최한다.

진흥원은 올해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통해 총 4개 사업 약 6억 원 규모로 총 35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구'라는 비전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총 4개 분야의 사업[꿈다락 주말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유

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찾아가는 예술교육(신규)]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유아에서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대구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지역화·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23년 11월 23일 도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라운드테이블과 3회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교육계, 학계,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공모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우선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전환됨에 따라 전 사업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며, 사업비 내 집행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행정 간소화를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찾아

가는 예술교육' 사업을 신설하여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의 진입 조건을 완화했다.

특히, '찾아가는 예술교육'의 경우 2023년 추진하였던 '예술로 놀자'(방문형)사업을 기반으로 일반인, 노년, 장애인 및 문화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방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신규사업이다. 23년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하여 지역 내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꾀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비롯해 분야별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과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신청 방법 및 신청서식 작성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설명회가 끝난 후 현장 컨설팅 및 저작권 등 관련 법률에 대한 1:1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개인을 비롯해 단체 및 기관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단체 및 기관을 위해 공모기간 동안 1:1 맞춤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 및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dgarte.or.kr)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dgarte@dgfc.or.kr)로 접수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컨설팅은 해당 사업 담당자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사업 신청접수는 1월 26일(금)에서부터 2월 13일(화)까지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공모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센터(053-430-1280, 1274, 1284, 1293)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2024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76,866필, 평균 0.63% 상승

경상북도의 1월 1일 기준 7만 6,866필지(2023년 7만 5,82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되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0.63% 상승해 지난해(6.85% 하락) 변동률보다 7.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 0.47%P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0.47%(60,000원) 상승한 1m²당 12,870,000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m²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도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m²당 1,835,000원(전년 대비 0.9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m²당 1,099,000원(전년 대비 1.85%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m²당 6,670원(전년 대비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6,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제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무료 안전검사 시행

상주시, 시민 안전점검 사전체크위한 '업무협약체결의 발빠른 행보'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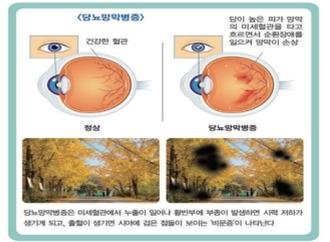
상주시보건소는 당뇨 질환자의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1월 22일 관내 안과 의원 3개소(서울안과, 영남연합안과, 제일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저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망막과 시신경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당뇨병 환자의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합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다. 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심할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당뇨병 환자는 매년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중 진단 후 1년 이상 투약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방문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 안과에 제출하면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과장(송복실)은 "당뇨병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부족한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질환이므로,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기계화...보물초 품질 드높인다

남해군, 시금치 전문 농기계 확대 보급, 파종·수확·단묘음 등 효율성 제고

장충남 군수, "군 중요 소득 작물인 시금치 생산 현장에 농기계를 확대 보급, 허리 펴고 웃으며 농사짓도록 힘든 노동도 줄이고, 생산 품질도 좋게 하겠다"고 밝혀

남해군이 보물초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금치 농사 기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해군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경상남도 보조사업에 통해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시금치 단작업기 37대를 비롯해 수확기·파종기 등 총 150대의 시금치 전문 농기계를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금치 단작업기는 올해 처음으로 농가에 지원됐다. 남해군은 시금

치 수확 시기에 일선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에 사전 신청을 받아 1월 초에 바 빠르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시금치 수확기는 지난해에 시범 보급한 바 있으며, 노동력 절감 등 농가의 호응이 좋아 올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남해군은 2011년부터 파종기 위주로 시금치 농기계를 공급해 왔으나,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와 사업량을 대폭 늘리고, 지원 품

목도 수확기, 단작업기 등으로 다양화했다.

장충남 군수는 25일 시금치 단작업기 보급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충남 군수는 "우리 군의 중요한 소득 작물인 시금치 생산 현장에 농기계를 확대 보급해 힘든 노동도 줄이고, 생산 품질도 좋게 하겠다"며 "허리 펴고 웃으며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의성로컬푸드직매장, 설 명절 맞이 선물세트 판매

김주수 의성군수, "직매장은 지역농가 생산물을 직판매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먹거리로 순환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의성군은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의성에서 생산한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사과, 배, 한라봉 등 지역산 과일을 비롯한 꿀, 한과, 흑마늘, 고추장 등 74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월 8일까지 직매장에서 전월 판매하고 직접 방문해 선물세트를 주문할 수 있다. 또한 직매장 앞마당에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직매장을 찾아 구매하신 소비자에게 선착순 100명에게 고급담요를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월 5일까지 택배예약을 받고 있으며, 직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054-833-1160)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한편 로컬푸드직매장(의성읍 문소1길 188)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명절 당일과 그 다음 날은 휴무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직매장은 지역

농가가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공간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먹거리로 순환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울진군, 발전 위한 적극적인 행보 공로 인정 연이은 수상으로 이어져

2024 K-브랜드 어워즈 미래혁신 도시 부문 수상

2023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2023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도시의 미래혁신 위한 공헌 인정

순병복 울진군수, "한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힘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울진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보로, 연이은 수상이 이어지며 그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군은 지난해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도와 노력 그리고 순병복 군수의 리더십 등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204여 개의 지자체 중 2곳만을 선정하는 '2023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과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에서 순병복 울진군수는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 운영의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연이어 지난 1월 24일에는 '2024 K-브랜드 어워즈' 미래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표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제정된 '2024 K-브랜드 어워즈'는 탄소중립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및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울진군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군이 가진 차별화된 경쟁력과 적극적인 유지보

지 선정에 성공,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발전과 더불어 탄소중립시대 수소 생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일조할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는데, 특히 울진군의 연이은 수상은 교통여건, 인적자원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조기 추진 ▲울진관광 1,000만 시대 준비 ▲농·어업과 산림의 대전환 ▲사람 중심의 복지제도 마련 ▲군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행정 등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상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한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금정구 장전2동, '건강상담실' 운영

부산 금정구 장전2동은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하며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작년 8월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면

서 시작한 건강상담실은 115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했으며, 주민 반응이 좋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운영 내용으로는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 측정, 치매 인지 선별검사, 우울척도 검사 등이 가능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방법 안내, 복약 및 식이 방법 지도 등의 맞춤형 건강상담과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금정구 보건소,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



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간호직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건강상담 요청 시 상시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힘들어 내방이 어려운 주민은 가

정방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전화 ☎051-519-5318)

김희태/기자

영양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외부 조달 먹거리를 맞춤형 지역 순순환 체계 전략수립에 박차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26일(금),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를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군수, 군의회 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영양교육지원청, 지역농협, 관련 기관단체,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용역 추진상황, 푸드플랜 비전 및 목표, 앞으로 먹거리 방향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보고회에서 개진된 내용들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영양군 푸드플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 제

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영양군 푸드플랜 비전·목표·전략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으로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영양군 맞춤형 먹거리 전략이 세워져 각 분야별 실용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본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농가소득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철우 지사, 경북도민회 참석 및 지방외교 위해 일본행

도쿄·오사카 경북도민회 신년회 참석... 민간네트워크 강화 히로시마현과 상생발전·우호교류의향서 체결.. 일본지방정부와 첫 물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쿄와 오사카 지역의 경북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히로시마현 교류를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일본 출장에는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및 임종식 교육감도 동행해 도민들을 격려하고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6일 일본에 도착한 이 지사는 경북의 민간외교에 앞장서는 해외자문위원(조옥제 자문위원 등 3명)을 만나 환담하고 업무 방향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27일은 도쿄도민회(회장 최용일), 28일은 오사카도민회(회장 정훈) 신년회에 참석해 도민을 격려하고 교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해외도민회는 일본 7개 도민회를 비롯하여 미국(2개), 호주,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7개국 14개가 설립되어 있다.

해외도민회는 경북도 국내외 행사와

수출 통상 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한류와 K-FOOD의 열풍이 확산하는 한류 발상지인 도쿄 신오쿠보 거리와 한인 매장(화장품 도매상)을 방문해 일본 소비자 반응과 경북제품의 일본 내 판로 가능성, 마케팅 전략을 청취하는 등 수출지원 및 판로 확대에 대한 현황을 직접 살핀다.

29일은 일본 히로시마현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2005년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파기한 이래 일본 지방정부와 다시 교류 협약의 물꼬를 튼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북이 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보았을 때 성금을 보내오는 등 고향사랑에 앞장서는 일본의 경북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히로시마현과 교류 협약을 체결해 관광 유치와 경북 우수상품 수출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주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군 예산의 15% 1,112억원 투입 주민 맞춤형 복지 시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예천

예천군은 올해도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총예산의 15.3%인 1,112억 원을 투입해 행복한 예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행복과를 신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별 복지향상을 위해 총총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754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개관해 인기리에 운영 중인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서 연령별 특성에 맞는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부모들의 육아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에 지난 7월 문을 연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총출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아이와 부모의 자아 성취와 행복권을 보장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한다는 각오다.

또한, 선제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외에도 편의점 점주, 이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아동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요보호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시책 발굴로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의 생활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예천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아동 돌봄 및 육아 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아동돌봄사업 공모전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선일/기자



영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난방비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 낮춰...환경·복지 '동시에'



경북 영주시는 관내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가정에 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확대돼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막내 자녀 18세 이하인 경우)가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40대로, 29일부터 예산소진 시(선착순 접수)까지 신청 환경보호과로 직접 신청 또는 보일러

공급판매업체(대리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코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가정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일러 공급판매업체(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054-639-6758)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친환경보일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국비 확보를 위한 재검증!' 봉화군,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 개최

박현국 봉화군수,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 국가투자예산 발굴과 국도비 확보는 꼭 필요, 관계 부처와 인적네트워크 수시 방문,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혀

봉화군은 26일 내년도 국도비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와 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을 포함 총 43건, 총사업비 6,456억 원에 국도비 1,156억 원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베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조성(440억 원) △국립산림안전원 유치(400억 원)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80억 원)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40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60억 원) 등이 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현국 군수를 비롯해 사업 부서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응전략을 공유하

는 등 국도비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해 국가투자예산 발굴과 이에 따른 국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수시로 방문해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라며 국도비 확보에 강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일본 사야마시 부시장단, 자매도시 통영시 방문

통영교육지원청, 통영RCE 등 교육관계 시설 현장시찰 시민교류를 중심으로 체험활동 등 교류확대 희망



통영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사야마시의 부시장(요시다 아쓰시)일행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통영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야마시 교육장(다키시마 마사시)이 함께해 행정교류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통영교육지원청과 제석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의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구체적인 교류 가능 분야를 협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위해 통영국제음악당과 통영RCE를 방문해 문화, 예술, 사회교육 분야 교류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 필요성에 공감했다.

25일 통영시청을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천영기 통영시장은 환영인사와 함께 "지난해 사야마시 시장단 방문에 이어 올해를 시작하며 우호관계를 또 한 번 다지게 돼 영광이다"며 "양 시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협력 사업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교류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요시다 아쓰시 사야마시 부시장은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교류협력 관계를 위해 애써주시

는 통영시에 감사드린다. 이번 방문으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이해의 폭을 넓혀 상호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며 "또한, 올해 10월에 있을 '사야마시제 제70주년 기념식'에서 통영시장님을 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초청의사를 밝혔다.

한편, 사야마시는 일본 사이타마현에 속하는 인구 14만의 중소도시로 일본 3대 녹차산지라 널리 알려져 있다. 1973년 충무시(現 통영시)와 자매도시 체결 후 문화, 교육,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유준/기자

경상북도, 시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선다

행안부-17개 시도, 2월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경상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계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26일부터 시군, 경북옥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은 안전신문고로!

행안부(행안부)의 시·도에서는 1월 12일부터 국민 불편 없도록 정당 현수막을 관리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생활불편-법률광고물 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 설치개수**
 -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은 100% 금지
 - 소방시설 주변(소방시설)은 100% 금지
 - 현수막 면적 10㎡ 이하
- 설치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 소방시설 주변(소방시설)은 100% 금지
- 설치규격**
 - 글자 크기는 5cm 이상(세로)
 - 정당명,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표시 기간
 -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시작일·종료일 명시
 - 현수막 면적 10㎡ 이하
- 설치방법**
 - 다른 현수막, 신호등, 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방법 금지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금지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가로등·연꽃대 등 현수막 2개를 혼용하여 설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이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규율 홈페이지, 앱, 포털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생활불편-법률광고물 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경상북도,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금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설명절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동래구 보건소, 「2024년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만 19세~64세 동래구 주민 및 직장인, 2월 1일부터 선착순 100명 모집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동래구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질환이 없는 사람 중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1개 이상인 만 19세~64세 동래구 주민 및 직장인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보건소 방문 사전 건강검진 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선정되며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 밴드, 사전·중간·최종 보건소 방문 건강검진(3회)을 통한 개인별 건강목표설정, 활동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상품이 무료 제공된다. 참여방법은 동래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보건소 3층 운동영양실(☎550-1950) 방문, 팩스(550-6749), 이메일(eunnae1971@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김희태/기자

일(eunnae1971@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중록 동래구 보건소장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동래구 지역주민 및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동계 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른 군위, 스포츠 명품 도시 도약 기대감

김진열 군위군수,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 대구시 군위군은 전년도 인천 동산고와 서울 동산고 야구부에 이어 올해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중학교 야구부가 군위 삼국유사 야구장에서 동계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맹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합숙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감독, 코치, 선수 등 30여 명이 참여해 겨울 한파를 뚫고 경기력 강화훈련과 체력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군위 삼국유사 야구장은 정식규격의 야구장 2면을 비롯해 실내훈련장 및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올 초에는 야간 조명시설까지 보강하여 최상급 인프라를 갖춘



대구 경북권 최고의 야구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가벼운 러닝, 체력훈련은 종합운동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우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 협회장은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 속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어 훈련을 거처갈 팀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며 항상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이 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군위군의 기운을 받아 올해 목표한 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2024 문경돌리네습지 보전관리위원회 개최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역점 추진방향 논의

문경시는 지난 25일 2024년도 문경돌리네습지 보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문경돌리네습지 보전관리위원회는 문경돌리네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문경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됐을 때 습지도시 운영 의사를 결정할 심의·의결·자문기구로서 작년 3월 발족했다. 백승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상범 문경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행정 관계자와, 황병태 부위원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대표 4인, 전문가와 지역 NGO, 전문 지원단체, 언론인 등 각 분야 특화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문경돌리네습지의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2024년도 문경시의 역점 추진과제인 '문경돌리네습지 명소화'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회의내용 중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에 의거, 지리적 측면에서 문경돌리네습지의 과거 모습을 조명하여 돌리네습지 복원화 사업의 의미와 추진 방향성, 산지형 습지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습지 주변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경시는 전문 위원들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 플랜에 입각한 습지 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복 환경보호과장은 "문경돌리네습지의 존재감이 부각됨에 따라 대내외적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문경돌리네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보전관리위원회가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경주시,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주택관리공단 경주용강1아파트 지정

경주시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 기간운영은 해외여행, 가족모임, 시설 면회 등 이동량이 많고 집단 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고위험군의 감염 및 중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현황에 따르면 1월 2주차(1.7~1.13.) 신규 양성자는 5040명(일평균 720명)이며,

입원환자는 지속 발생 중으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대상자인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있다.

백신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mRNA방식의 화이자, 모더나XBB1.5 백신과 유전자 재조합방식의 노바백스 XBB1.5 백신 중

에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집중은 지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68곳에서 예약 없이 당일 가능하다. 앞서 1,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과거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위탁의료기관 지정현황은 경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외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빈집정비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늘어나는 빈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기대

안동시는 지난 24일(수), 「안동시 빈집정비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안동시는 빈집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안동시장과 안동시의원(정복순, 이재갑, 김순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동시는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철거, 활용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이번 빈집정비계획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안을 제시했으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통해 빈집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패착한 도시 및 농촌환경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전통시장 활성화' 설 명절 장보기 행사 추진

공무원·관계기관 등 1,050명 참여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기

김광열 영덕군수, "설 명절 전통시장 활력과 지역경제를 위해 장보기 행사를 추진, 전통시장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해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 형태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이에 해당 기간 군청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등 1,05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덕사랑상품권 또는 은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를 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민께서 전통시장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이철우 도지사 환영문

드디어 동서 화합의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영호남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시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화의 역군이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장기 국가경제 주도를 위해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동서축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였습니다.

이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유일의 달빛철도 경유지인 고령역 건립 추진으로, 지난해 등재된 세계유산 고령가야 고분군에 국민과 세계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큼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이 이루었고, 이제 함께 만들어 갈 길입니다. 앞으로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되어 영호남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윤근수/기자

대구교통공사, 역대 최대규모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전년 1,236억 원보다 13% 증가한 1,402억 원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력 제고

대구교통공사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을 위해 공사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02억 원을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인 1호선 안심~하양복선전철 건설공사 마무리에 621억 원, 4호선(엑스코선) 설계용역 100억 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등 고객서비스 개선분야 126억 원, 서문시장역 대합실 확장 등 시설물 개선에 179억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구매 136억 원 등이다.

공사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해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공사 발주 시 지역의무공

동도급제를 시행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적용하고 적극적 선금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지역업체 460억 원, 중증장애인기업 8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17억 원의 공사·용역·물품을 구매했고, 상생결제로 154억 원을 지급해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약자의 판로를 지원했다.

공사는 올해도 중증장애인생산품, 혁신제품 등 구매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기술성이 보장된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해 지역업체들의 판로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올해도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 경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시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10개 반 구성 종합상황실 운영

설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민원 공백 없이 신속 대응

경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행복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35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재난재해관리반, 진로대책반, 급수대책반, 교통대책반, 청소관리반 등 10개 반 104명으로 편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 및 안전사고 등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대형건물 및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재 사고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물류창고 등 18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24시간 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근로자 임금 체불 예방 및 지원에 나서는 등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설을 앞두고 중요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해 20대 성수품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격표 게시,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소포밀집 '경산몰'에서 6백여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경산사랑카드 인센티브를 10%(전년 7%)로 연중 상시 상향 지급하며, 2월 5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주차차 단속도 유예한다.

노숙인,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누구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 한다.

조현일 시장은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크지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와 1,300여 공직자들이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 "1인 가구 퇴원환자 단기돌봄서비스사업" 시행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도창,김길동)는 지난 25일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영양가치같이 돌봄사업 읍·면 사업 담당 공무원, 수행기관과 수행인력 대상으로 '2024년 영양가치같이돌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도 신청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수행인력 김OO씨(65세, 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사업 참여 전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알려주어 좋았다."라며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돌봄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예

산 소진 시)까지 1인 가구 퇴원환자의 조기회복 및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관내에 없는 실거주 1인 가구 중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자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이며 가구 전체 근로능력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노인부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아동 동거가구 등)도 포함되며 연령 제한은 없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상담을 통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최대 2개월까지 주 1~3일(1일 2시간) 가사·건강지원, 신체수발,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던 25명의 대상자가 서비스받았다.

오도창 공공위원장은 "군협의체가 민

관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영양군에 필요한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송도서관 2024년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소통과 조화로 미래를 채우는 청송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청송도서관은 오는 30.(화), '소통과 조화로 미래를 채우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자료확충 방안, 평생교육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청송도서관은 ▲미래 기반의 지식정보 공유 ▲모두 함께 성장하는 인문독서문화 조성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 ▲변화와 소통의 행정

서비스 실천을 추진과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연 관장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라며 "2024년에는 책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송군민의 꿈과 상상력,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옛 부산진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아이들이 들락날락"

박형준 시장,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집 가까이서 좋은 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게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원도심에 한층 더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

부산시는 동구 문화플랫폼(옛 부산진역사) 시민마당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 완료하고, 오는 2월 1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동구시민마당 들락날락은 지상 1층, 연면적 387.5 제곱미터(m²) 규모로 조성됐으며, 조성에 총사업비 21억 원(시비 18억 원, 구비 3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어린이도서 열람 공간 ▲세계명화와 세계관광지 감상 가능한 미디어 아트존 ▲신체를 활용해 화면 속 캐릭터를 움직여보는 게임존 ▲직접 색칠한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라이브 스케치존 ▲EBS 학습콘텐츠를 활용한 EBS랑 놀자 존 등이 있다.

야외공간에는 친환경 특수소재로 제

자리뛰기, 사방치기, 달팽이 게임 등 총 6종의 놀이시설을 바닥에 설치해 가족들과 함께 옛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개관식은 오늘(26일) 오후 2시 30분 조성지 앞에서 열린다. 시장, 동구청장, 국회의원,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함께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 카타리 아저씨, 디즈니 뮤지컬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박형준 시장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옛 부산진역사가 동구 문화플랫폼으로 조성된 데 이어, 이곳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도 조성됐다"라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집 가까이서 좋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원도심에 한층 더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들락날락은 아이들이 집 가까이서 독서, 문화체험,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신개념 미래놀이터로,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종합지원(앵커) 시설이다.

시는 2026년까지 20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동구 시민마당 들락날락을 포함해 43곳을 개관 완료했고, 41곳을 조성하고 있다. 들락날락에 대한 전체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정보는 들락날락 플랫폼(<https://busan.go.kr/bschil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태/기자



청도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고용농가 사전교육



청도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의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여 최장 8개월간 근로하는 제도로서, 이날 교육은 지난 12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결혼이민자,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안내로 이뤄졌다.

군은 처음으로 지난해 9월 21일 필리핀 카빈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

입하여 감, 미나리, 딸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들 중 성실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24년 상반기 신규농가에 배정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은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하겠다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신년인사회 참석해 상인 격려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포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포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주최로 죽도시장 내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새롭게 마련된 상인연합회 사무실의 헌관식에 참석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포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심심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허창호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및 공동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인들부터 친절과 친절 등에 더욱 신경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설행태화, 주차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

업,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죽도시장 외 3개 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죽도여시장 외 5개 시장 아케이드 신설 ▲구룡포시장 외 3개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죽도시장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수행 ▲시장경쟁력 패키지사업 ▲행복경영매니저 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태용/기자

전남도, 광주은행·전남신보와 금융버스 운영·특별출연 협약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경영안정 지원

전라남도는 26일 도청 접견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함께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버스 운영 및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남도와 광주은행, 전남신보는 전통시장 및 도서, 산

간 등 금융 소외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 시범운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금융버스 '가드림'은 광주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를 활용해 현장을 방문, 대출·보증·소상공인 경영컨설팅·재무상담 등 통합 민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선 또 광주은행이 고급

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년의 10억 원보다 대폭 상향한 15억 원을 전남신보에 특별 출연했다.

이에 따라 전남신보는 전통시장 및 금융 소외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총 18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소상공인 특별이자지원 자

금이나 기타 정부·지자체 이자지원 자금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2~4%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는 "금융버스는 섬과 오지가 많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전남에 딱 맞는 서비스"라며 "두 기관이 소중한 뜻을 모아준 이번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연말연시 어려운이웃 돕는 '함평 나산 365 나눔창구', 관내 7개소 소상공인들 온정으로 '풍성'

누구나 채우고 가져가는 '나산 365 나눔창구', 자발 참여로 운영, 기부물품 '꾸준'

전남 함평군 나산면에서 운영 중인 '나산 365 나눔창구'가 돌봄 이웃을 위한 기부 창구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6일 관내 지역 상점인 '이디야', '천지면옥', '갈비명가', '정경복궁'에서 무료 식사 및 음료 쿠폰 50매를

후원하고, '함평애푸드', '백세로약국', '풍년농약사'에서는 세제 등 식·생활용품 후원하는 등 총 13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쾌척했다.

'나산 365 나눔창구'는 지난해 약 50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다녀갔으며, 총 45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천지면옥 함평점은 "지역사회에 나

눔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만큼 어려운 주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예산 지원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운영 중인 '나산 365 나눔창구'는 관내업체의 후원을 받아 식·생활용품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창구를 설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밀착형 돌봄체계를 구축해왔다.

정제원 나산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관내업체 운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나산 365 나눔창구'는 주민 중심의 건강한 나눔문화와 공유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청년농업인 여러분이 미래 나주 농업의 주역입니다"

나주시, 청년농업인 소통간담회 ...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전라남도 나주시는 2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10여명과 신년맞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나주 농업의 미래 희망이자 역군인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방안과 농업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지난 2018~2019년에 선정됐던 농업경영인들로 생활·영농 자금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포함,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나주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뒷받침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청년 농업인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저리융자',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영농기반 조성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분기별 정례화하고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목포대순천대 단일 의대 추진 결정 환영"

"캐나다노스웨스트대 사레바탕 단일 통합의대 설립 적극 지원"

김영록 전남도 지사는 2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권 '공동 단일 의과대학' 추진을 전격 결정한 것을 환영하고, 캐나다 노스(NOSM)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단일 통합 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목포대·순천대 공동 단일 의대 추진 결정 환영문'을 통해 "전남을 대표하는 두 대학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흐름 속에서 반드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과 절박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붕괴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라며 "특히 의료 최대 취약지 전남은 심각한 초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그 어느 지역보다 높

지만, 의료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사실상 의료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수도권 의료인력만 확대할 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료계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 증원 방침에 힘을 모아주고,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2026학년도나 2027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줄 바란다"며 "전남도는 캐나다 노스웨스트 대학의 지역의료 선도모델 사례를 바탕으로, 두 대학의 단일 통합 의과대학을 공동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배/기자

남원시 94회 춘향제, 다채로운 색깔로 돌아오다

남원춘향제 5월 10일부터 7일간 개최...기본계획 발표



남원시는 제94회 남원춘향제를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춘향, Color'를 주제로 다채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가 확대된 축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춘향제는 남원에서 1931년에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올해 제94회를 맞이하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내 대표 축제다.

올해 제94회 남원춘향제는 공연예술과 시민참여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도 높은 축제를 지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의 100회를 맞이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젊은세대와 기성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와 관광상품들을 개발해 남원춘향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94회 남원춘향제의 특징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춘향제에 맞는 시대 캐릭터 코스튬, 퍼레이드, 의상 체험으로 모두가 즐기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며, 거리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다. 거기에 처음 선보이는 뮤지컬 춘향,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콘

서트, 불꽃축하쇼 등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남원춘향제 기간에 맞춰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춘향페스타로 쇼핑의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 계획이다.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체험쿠폰,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상인들의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시는 이러한 고도화된 콘텐츠와 확대된 프로그램들로 제94회 남원춘향제 목표 방문객을 100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남원시 전라도권을 넘어 전국구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6년 후인 100회까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축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94회 남원춘향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매년 기대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특히 시민의 많은 응원과 격려, 자발적인 지원이 항상 큰 도움이 됐으며, 올해도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면서 더욱 성장하고 신명나는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전북도내 대설경보 발표에 재대본 비상2단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2시 정음, 순창에 이어 4시 40분 부안, 김제 4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발표(4시 40분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추가로 6시 20분 기점으로 고창까지 대설경보가 확대돼 도내 5개 시군으로 대설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강설 및 한파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발달한 눈 구름대가 내륙 깊이 유입되면서 23일 오전부터 차차 눈이 전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어, 24일 아침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량은 서부 및 순창 지역은 5~15cm(많은곳 20cm 이상)이며, 그 외 지역은 3~8cm 눈이 내릴 것으로 많은 눈으로 인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유의 및 차량 이동시 교통상황 사전 확인, 월동장비 구비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 파신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고갯길과 출퇴근길의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 등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의 전화·방문으로 안부확인 실시하도록 했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는 "한파 취약계층 관리 강화, 계량기 등 동파 피해 복구 철저, 선제적 도로통제 실시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광주광역시 자동차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시계획, 주요시설간 물흐르듯 도로 연결 인상적

철로·화물창고 등 역사유산, 민관 협력으로 관광명소화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도시정책 현장시찰단이 지난 20일 일본 요코하마를 찾아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에 나섰다. 또 근대역사문화유산 건축물 활용 방안 모색도 이뤄졌다.

강 시장 등 현장시찰단은 이날 요코하마 철도역과 주요 건물을 연결하는 공중보도, 넓은 보행로,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와 철길·창고 등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사례 등을 둘러봤다.

현장시찰단은 사쿠라키초역 → 요코하마 시청사 → 옛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 → 기타나카 브릭 → 니혼마루 메도리얼파크 → 미나토미라이 자보보도(무빙워크) → 랜드마크타워&프라자 → 도크야드가든 → 그랜드물공원 → 린코파크 → 수변공원 → 아카엔가 창고 → 조노하나파크 →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3시간 가량을 도보로 직접 이동하며 요코하마의 보행공간 특징을 탐색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걷고 싶은 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보행 중심 설계, 광주신세계 확장 및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문제 해결,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활용방안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탐방에는 윤장식 요코하마 국립대학교수 등 동행해 요코하마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1859년 일본 최초로 개항한 요코하마는 1980년대까지 항만무역도시로 성장했으나, 조선소 이전 등으로 공업도시로서의 힘을 잃었다. 이후 도심 공동화(베드타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오피스·쇼핑문화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 '유메하마 2010 플랜' 등 장기 도시

계획을 통해 요코하마의 도시 자립성을 강화, 도쿄 수도권의 업무기능을 분담하고 슬럼화된 기존 항만을 공원·녹지 공간으로 정비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현장시찰단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건물과 길의 연결 사례에 주목했다.

먼저 사쿠라키초역과 랜드마크타워, 쇼핑센터를 거쳐 요코하마시청까지 복층도로로 설계된 보행공간을 확인했다. 보행 공간과 자동차 공간을 분리하는 등 인간중심의 도시 조성은 물론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업무·상업 복합공간을 살펴봤다. 현장시찰단은 이곳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성공한 점을 눈여겨봤다.

특히 과거 공업도시로서의 역사 보존을 위해 철로 구간을 개항의 역사를 담은 '개항의 길', 화물창고를 이벤트 홀·상업시설이 결합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원형보존·개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조선소·은행 건축물 일부 등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개발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진화했다.

윤장식 교수는 "요코하마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중심'의 도시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장기계획을 세워 지속가능한 신도시 모델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의 디자인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살려 해변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낸 점도 주목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요코하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이자,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 즉 인간중심의 도시설계로 보행의 편의뿐만 아니라 친환경 도시로 진화했다"며 "복합적인 도시계획 비전을 세워 풍부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완도해경서장, 눈보라 치는 기상에도 항포구 등 치안현장 점검



이남출/기자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 및 항포구 안전시설물 확인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연이은 기상악화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남군 소재 어란·구성항 선착장 및 관할 상주항 출장소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상 불황에 따른 주요 항포구 어선 출몰 등 고박상태를 확인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근무하는 출장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 서장은 직접 관내 전 해상 풍랑주의보 및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어란·구성항 및 도선 선착장을 방문, 정박어선 고박상태 및 이용객들의 미끄럼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선착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어란·구성항 출장소를 방문해

△관할구역 지리적 특성 확인 △출장소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청사 환경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 서장은 "기상악화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출항통제 및 항포구 정박어선 안전관리 강화하는 한편, 기상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목포시, 장애인의 환한 웃음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저원정책 마련

목포시가 생활 속에서도 안전과 편리함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목포시 인구 21만 4,156명 중 등록장애인은 13,637명으로, 전체 시민 중 약 6.4%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직접영향을 받는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 한해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돌봄, 장애인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올 한해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소득·일자리, 장애인돌봄 지원!

목포시는 지난 한해 소득·일자리 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일자리 확충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총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행정도우미 63명, 주차제도, 청소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383명, 특화형일자리 19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요양보호사 보조활동), 전남형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 38명(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또한, 장애인돌봄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총 2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만 6



이남출/기자

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1,00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60시간 ~ 480시간까지 제공했다.

▲장애인의 안전된 삶 및 사회참여 지원 교육 제공!

목포시는 장애유형 및 정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파악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힘썼다. 대표적인 장애인 생활안정 제도인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대 40만 3,180원까지 지급했다).

현재 시는 중증장애인 2,286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 도내에서 2번째로 많은 인원(90.44%)은 전국 1위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중 만 18세 이상인 자는 장애수당(3~6만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장애아동수당(3~22만원)

을 지원한다.

목포시의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총 3,363명(수급자 2,374명·차상위 989명)이며, 수급희망 이력관리·신규 장애등록 대상자에 대한 신청 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서부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일상생활 훈련, 사회성 증진, 건강관리, 의사소통 증진 등 성인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사회적 자립생활지원과 평생 학습 교육 기회 확대 및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 사회참여 지원 확대!

목포시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1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 목포시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최적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목포시의료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특화장비를 구입해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목포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의 분관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을 추진하기 위해 35억원 예산을 투입해 증축함으로써 쾌적한 이용과 안전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박홍배 목포시장은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목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대피요령 홍보 나서



박종배/기자

장흥소방서는 공동주택(아파트)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대피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화재는 다수층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낮아, 발화지점(층)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구조요청 및 대기 등이 안전하다.

화재 시 연기(화염)로 인한 대피불가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하므로 화재 발생장소 및 대피요령에 맞춘 대피행동 요령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최근 새롭게 마련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적극 홍보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세대별 피난안전대책 안전메뉴얼 홍보 ▲입주민 관리자 대상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및 소방안전교육 ▲공동주택 옥상피난시설 설치 안내문 발송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대피요령 홍보영상 송출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독려 등이다.

최홍수 장흥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형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상시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속적인 화재 피난요령 홍보를 통해 화재 피난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구례군, 친환경 흙살리기 실천 위한 유용 미생물 연중 공급

유용 미생물 6종 연간 400톤 생산·공급 예정

전남 구례군은 친환경 흙 살리기 실천을 위해 용방면에 소재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의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BM활성수 등 총 6종의 유용 미생물을 자체 생산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050 농가에 390톤의 미생물을 공급해 토양 환경 개선, 축사 악취저감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적극 지원했으며, 특히 자동 공급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유용 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게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군민은 매주 목요일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해 유용 미생물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유용 미생물 교육은 1. 25 13시 30분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친환경 흙살리기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본이 되는 유용 미생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 좋은 품질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4동계청소년 올림픽 정선 설상경기장 현장 점검 및 종사자 격려

박경귀 아산시장 "음봉면, 미래성장동력 첨단산업 유치할 것"

22일 '2024 상반기 음봉면 열린간담회' 개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2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알파인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진행 중인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경기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리프트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해 관중 심터와 경기장내 시설 등을 점검했고, 설상종목은 빠른 스피드와 곡예 등으로 다른 종목보다 부상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 경기 시작 전 한 번 더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며 경기장을 점검하고 올림픽 주변 이용 도로, 한파심터, 선수촌 식당 등 현장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고 수시 보고를 받으며 대회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챙기고 있다. 김 지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오늘로 8일째가 되며 반환점을 돌았다. 조직위 직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파견 직원, 소방·경찰·의료진 등 관계자 모두가 안전, 위생, 대설, 한파 등에 지금까지 잘 대처해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형/기자



또한, 김 지사는 경기장 내 설치되어 있는 의무실을 방문해 선수를 비롯해 관람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애써주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정선 하이원리조트 내에서 고령의 나이에도 내 가족처럼 선수들을 맞이해 안내해주는 박용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한편, 1. 19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과 함께 김 지사는 평창, 강릉, 횡성, 정선 개최도시를 오가

박경귀 아산시장은 22일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상반기 열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영 시의회 의장과 홍순철 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박경귀 시장은 "음봉면은 아산시가 모시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탕정2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고품격 주거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면서 "이러한 큰 비전 외에 다양한 현안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주민들은 ▲버스정류장 비가림 시설 및 스마트 승강장 설치 ▲동암2리 등 클린하우스 설치 ▲음봉농협 앞 과속방지턱 설치 ▲쌍용 보건소 앞, 원남리 하나마이크론 앞 회전교차로 조성 ▲산동1리 마을회관 보수 ▲산동사거리 도로 확포장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요양병원 유

치 ▲국지도 70호 도로 파손 부분 개 보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홀→18홀 규모 확장 ▲매곡천 상류 유속 회복 보수 ▲이순신 장군 묘소 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등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하며, 그 과정에서 음봉지역에 대한 시정 구상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탕정2지구에 포함된 음봉면 지역에 R&D집적지구를 만들 예정이다. 판교처럼 AI·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이곳을 잇는 628번 도로를 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이 도로 북단 일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이뤄졌던 총무권역이 올해 8월 시로 귀속되면, 운전치유센터를 설치해 아산온천을 치유온천으로 만들겠다"며 "온천의 치료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치유욕조 등 각종 시험과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들어 음봉면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68건(2022년 하반기 25건, 2023년 상반기 22건, 2023년 하반기 21건) 중 ▲산동3리 마중택시 운행 요청 ▲버스노선 확대 조정 ▲백의중군 길 고층 및 정비건의 ▲경로당 난방비 차등 또는 추가 지원 ▲폐골산성, 물한산성 권역 정비 ▲연암산 정상 정상화 설치 ▲연세유업 아산공장 악취 해소 등 19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서천특화시장 복구·상인 일상 회복 "총력 지원"

김태흠 지사, 23일 화재 복구 대응 현장서 상인들 만나 긴급 지원 대책 밝혀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재해 복구 및 상인 일상 회복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아침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대응 현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김 지사는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 뒤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즉시 상가 당 200만 원씩 긴급 재해구호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립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 피해 상가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상인 여러분들이 설 명절 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서천군의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촉행사 등을 개최 지원하고, 소비자 단체 협조를 받겠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중앙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천특화시장 건물 신축도 즉시 추진한다.

김 지사는 "새롭게 시장을 신축하기 위해선 공사 규모가 커서 입찰을 하고 설계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장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22일 오후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완진됐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간 시장 내 설치된 소화기(자동 화재 감지·신고장치)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59분 대응 2단계 발령과 함께 통제단을 가동했다. 이번 인력은 361명, 장비는 45대다.

이날 불로 서천특화시장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위치한 서천특화시장은 2004년 9월 개설했다. 건물은 2층짜리 5개 동에 연면적 7018㎡ 규모이며, 총 292개 점포에 295명이 종사 중이다. 최정근/기자



원주시 어린이집 영유아 유제품 지원 사업 만족도 95.5%

어린이집 교직원, 학부모의 95% 이상 만족

원주시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의 95% 이상이 원주시 어린이집 영유아 유제품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유제품)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교직원 221명, 학부모 538명 등 총 759명이 참여했으며, 교직원 96%, 학부모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해당 사업이 어린이집 교직

원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 "성장기에 필요한 유제품을 어린이집에서도 보충해 주니 너무 좋았다."며 어린이집의 유제품 급식 지원에 만족감을 보였다.

'2023년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유제품)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식생활 개선, 건강한 성장 발육, 어린이집 급식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1인당 1일 1개의

원유유 100ml 이상을 지원하는 원주시 대표 급식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원주시는 매일 어린이집에 지역 우수농산물 '토토미'를 급식용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원주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제품과 지역 우수농산물 토토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는 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사업을 1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협약금융기관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올해 이차 지원율은 4%로 작년 대비 0.5% 상향되었다.

융자추천 및 이차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대출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태백시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태백을 만들기 위해 기업지원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청주지역 사회복지시설 현장 방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 청주시 일원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새해를 맞이해 민생 현장의 중심에서 직접 소통함으로써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내 따뜻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김 지사는 수곡동에 위치한 사랑의울타리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필진)에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랑의울타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5여명이 이용하고, 돌봄, 급간식 제공, 기초학습, 미술, 체육 등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미평동에 위치한 미평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실, 놀이터 등 시설을 돌아보며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사들은 출생률 저하로 갈수록 재원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출생률 10% 증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김 지사에게 응원과 당부

의 말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프란치스코의 집을 찾았다. 김 지사는 이 시설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능력을 키우고, 장애를 극복하여 경쟁적인 고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품을 전달했다.

프란치스코의 집은 화장지, 면장갑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장애인생산품 작업장이며, 56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월오동에 위치한 은빛양로원을 방문하여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 70여명을 가족과 같이 살뉘며 보살피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위로품을 전달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일일이 살피고 점검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소외된 이웃을 가족처럼 돌보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심으로 일하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아동, 보육, 노인, 장애인 복지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정화/기자



안동시,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

2월 8일까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등 점검

안동시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 명절을 대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3개소 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통시장 내 제수용 음식 등을 제조·판매하는 축적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

적인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친절·위생교육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으로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김영남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2023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하반기 보고회 개최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의 공유와 실천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 실현

경상북도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목), 봉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7명을 대상으로 봉화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하반기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하며, 2023학년도에 심의했던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 심의 현황을 보고하고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 심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에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를 심의위원들에게 소개하며, 전담

조사관과 사례회의(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봉화교육지원청 권혜자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 소속 지원단(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지원단,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함을 되짚었다. 이번 하반기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지었다.

윤근수/기자



2024년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겨울캠프 개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단원 58명, 강사 14명, 운영 위원 2명과 함께 영덕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2024년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겨울캠프를 운영하였다.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전문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창단되었다.

겨울캠프에서는 전문 오케스트라로 비상하기 위해 준비를 다지는 시간으로 각 악기 파트별 집중 연습과 전체 합주

연습을 하였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색소폰 등 12종 악기별로 전문 강사의 지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올해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는 7월 부산, 울산 학생예술문화회관 오케스트라 교류 활동, 10월 정기연주회 및 수시 봉사 연주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미화 원장은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재능을 서로 나누며 예술적 소통을 통하여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신나는 겨울 방학, 즐거운 개학 준비!

경산 정평초 특수교육대상학생, 동계방학 중 단기계절학교 3일간 실시

지난 24일 수요일, 경산 정평초등학교(교장 박주봉) 특수학급 교실에서는 겨울방학 중 단기계절학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24일(수)~26일(금)까지 3일간 운영되는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방학 동안의 교육 기회의 손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개학 후 학교 적응의 어려움 등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학습 동기를 높여 학생 개인의 교육회복력 증진을 위해 계획된 특수학급 단위의 자체 프로그램이다.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19명과 특수교사 3명, 특수교육실무사 2명의 참여로 실시된 이번 동계방학 특수학급 계절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들의 실태분석에 의거한 수요자 참여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2023년 이어 2년째 실시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생활 습관 형성 및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경험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방학 중의 프로그램은 공예, 사회성, 직업, 요리 등의 교내 활동과 인근 지역사회 시설 이용 교외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감각 발달 및 정서적 안정을 함양하며, 질서 및 규칙 준수 등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촉진 및 개학 맞이 학교 적응 기초 기본 습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교 6학년 이○훈 학생은 ‘방학 동안 궁금했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공부하니 너무 설레고 행복했다.’ 라고, 3학년 김○준 학생은 ‘친구들과 영화 관람도 하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하니 너무 신나고, 빨리 개학해서 매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참여 소감을 전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개학준비 및 건강한 방학생활 위한 긍정적 초석이 되었음을 알렸다.

박주봉 교장은 “방학 중에도 학생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내어주시는 선생님과 적극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동현/기자



한울3호기, 발전재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월 19일 전력거래소 요청으로 발전을 중단한 한울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25일 발전을 재개했으며, 27일 오전 10시경 정상운전 출력에 도달했다” 라고 밝혔다.

한울3호기는 발전정지 후 주변압기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가스절연모선의 부분방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모선 고정부 부품 등을 교체하였으며 정밀점검과 전원가압을 통해 해당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시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2024년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 친절교육 및 정기총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회장 조신자)의 정기총회를 열었다.

주부자원봉사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응대 요령, 친절 서비스 실천 교육, 2023년 결산보고, 2024년 운영활성화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부자원봉사자는 구미시의 얼굴로, 오랜 시간 한결같이 시청 민원실과 함께 해 온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요

자의 입장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했다.

1997년 구성해 올해로 27년이 된 구미시 주부자원봉사회는 회원 35명이 매일 2명씩조를 이루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 작성, 민원 처리 절차, 업무부서 안내 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김동현/기자

경북과학고등학교, AI 융합교육 특별프로그램 실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학적 탐구방법 모색

경북과학고등학교는 지난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AI 융합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 및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이해, 인공지능 제작을 위한 파이썬 활용, 머신러닝 제작 등의 강연을 들으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지도학습,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접근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를 적용해 보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홍식 교장은 “AI는 생물학, 물리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연구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과학적 탐구 방법

을 제공하고 있다니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드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을 걷다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과 영양은 건강의 핵심입니다.

빛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영양을 제공합니다.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수확의 계절, 건강한 삶을 즐기세요.

간음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재와 남이로, 삼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머리,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방해늘보유공원, 빈곤투어터전,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랑풍력발전단지, 울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생태박물관, 본재수식야생화전시관

ida, KOREA TOURISM, citius, 영랑자연휴양림

하남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하남시가 최근 하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유찬주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패널 5명, 시민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찬주 도시주택국장은 “하남시를 시민 모두가 잘사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우리 시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큰 틀의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 귀중한 의견을 요청한다”면서 공청회의 시작을 열었다.

공청회는 K-스타일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하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영상으로 상영하고, 상영 후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패널 의견을 듣는 과정과 이후 시민 의견을 듣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1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 초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미래 발전의 방향성이 제시될 2040년 하남 도시기본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대구시 케이메디허브 실시간 세포대사 분석 지원 확대

호중구 유사세포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 가속화 기대

케이메디허브가 실시간 세포대사분석기 활용 호중구* 유사세포의 산소소비율을 측정하는 신규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포대사분석기는 살아있는 세포의 산소소비율(Oxygen Consumption Rate, OCR) 및 외부 산성화율(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ECAR)을 측정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작용과 그 대사경로 변화를 분석할 수 있어 비만, 당뇨, 노화 등 대사기능 측정이 중요한 연구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실시간 세포대사분석기(모델명 Seahorse XFe96 Analyzer)를 활용해 호중구 유사세포 'dHL-60(differentiated HL-60)'의 실시간 산소소비율 측정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본 서비스는 골수성 백혈병 세포주 'HL-60'을 호중구 유사세포 'dHL-60'으로 분화를 유도하고 개발 약물에



대한 산소소비율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분석결과를 호중구 활성화 및 면역연구에 활용되어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신규서비스 관련 상담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안전성평가팀 정권수

선임연구원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 기업의 R&D 투자가 정체되지 않도록 기술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의료제품 개발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새만금 발전을 위한 2024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정기총회 성료

23년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예산 결산 및 활동 성과, 24년 사업계획 공유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위원회 이사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정기총회를 전주 시 소재 라무체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23년 위원회 예산 결산 및 24년 사업계획 보고, 신규 이사진 선임과 새만금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관영 도지사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정기총회는 이사장 개회사, 23년 사업에

대한 결산 및 24년 사업계획 보고, 신규 이사진 위촉장 수여, 김관영 도지사 축사 및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은, 인사말씀으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새만금의 발전과 질풍을 정책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으며, 대한민국의 비전인 미래의 땅 새만금이 하루 빨리 조성될길 바라며, 전세계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도약

을 위해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건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김관영 도지사는 “1월 18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이름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을 것이고, 새만금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이제 새만금은 비상할 준비를 마쳤고, 새만금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핵심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및 여론형성, 정책개발 및 자문,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홍보 등 민간 부분 활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출범된 사단법인 단체다.

이남출/기자

제천시-충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협약'유치 총력

제천시와 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 간 시범지역의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제천시는 앞으로 제천시장과 충북교육청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기업, 주민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

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으며, 충북교육청과 협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음성군, 균형발전·주거기반 확충...인구 증가 기대

1만3856세대 공동주택 추진...올 하반기 성분산단 공동주택 입주 시작

음성군이 주거 기반 확충과 균형 발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모색하며 음성시 승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군은 기업 투자유치로 일자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나서고 있다. 그에 따라 공영 및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1만 3856세대가 승인돼 6551세대가 착공 중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영 3개소(대소·삼성·감곡)·민간투자 2개소(금양·맹동)에서 7659세대의 주택 건설을 손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음성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56세대를 준공하고 맹동행복주택 295세대가 입주 중이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에서는 클러스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998세대 확보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3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원남면 보천리 일원 1만6048㎡에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 30호, 공동육육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음성 남부지역의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공모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등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돼 청년 세대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기가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군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1차 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 해 동안 187개 마을에 1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고 마을속원사업을 해결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344개 마을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엔 마을안길 확포장, 농로 정비, 방범용 CCTV와 마을회관 찜질방 설치, 아파트 승강기 교체, 아파트 옥상 방수 등 이 사업을 통해 마을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올해 2차 년도 사업에서는 105개 마을에 80억원을 투자해 스인도정비 스타 양광발전시설 설치 △마을회관·경로당·공동주택 보수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최만식/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에 도전합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가능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클린에너지 중심 원단산업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초대된 정상과 대표단을 위한 화적의 경호·안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영화 '애니멀 킹덤', 제29회 루미에르영화제 감독상 수상에 이어 제49회 세자르영화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총 12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 쾌거!

2023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섹션 개막작으로 전 세계 언론과 관객의 찬사를 받은 영화 <애니멀 킹덤>이 제29회 루미에르영화제 수상 및 제49회 세자르영화제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 소식을 전했다. [감독: 토마스 카일리 | 출연: 로망 뒤리스, 폴 키르세, 아델 에그자르코폴로스 | 수입·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영화 <애니멀 킹덤>은 알 수 없는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느 날, 몸의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한 '에밀'과 그런 아들 '에밀'을 지켜 주려는 아바의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 판타지.

먼저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각) 프랑스에서 열린 제29회 루미에르영화제에서 토마스 카일리가 감독상을 수상했다. 루미에르 영화제는 세계 최초로 영화를 만든 '루미에르 형제'의 이름을 따 만든 영화제로 프랑스의 '골든글로브'라고 불리는 만큼 <애니멀 킹덤>을 향한 기대감이 고조된다.

뿐만 아니라 1월 24일(현지 시각) 노미네이트를 공개한 제49회 세자르영화제에서 총 1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 후보 중 최다 부문 기록

으로 놀라운 저력을 과시했다. 후보 부문에는 작품상, 감독상(토마스 카일리), 남우주연상(로망 뒤리스), 남우신인상(폴 키르세), 각본상, 음악상, 촬영상, 의상상, 미술상, 음향상, 편집상, 시각 효과상으로 주요 부문에서 모두 지명돼 웰메이드 영화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세자르영화제는 1976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영화인의 최대 축제인 프랑스영화예술아카데미가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오스카'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45회 세자르영화제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렇듯 쟁쟁한 세자르영화제에서 <애니멀 킹덤>이 세울 수상 기록에 이목이 집중된다. 시상식은 오는 2월 23일(현지 시각)에 진행된다.

앞서 <애니멀 킹덤>은 제76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섹션 개막작으로 선정, 월드 프리미어로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났다. 이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되어 국내 관객들에게도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제56회 시체스영화제에서 오피

셀 판타스틱-스페셜, 비주얼 메이크업 효과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화 <애니멀 킹덤>은 강렬한 비주얼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해외 유수 영화제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이는 영화 <애니멀 킹덤>은 올해 상반기 국내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제29회 루미에르영화제 감독상 수상, 제49회 세자르영화제 12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촬영상 의상상 미술상 시각효과상 작품상 음향상 편집상 감독상 남우신인상

'밤에 피는 꽃' 이하니, 최유화의 은밀한 사생활 목격! '입틀막 충격' 포인드.

'밤에 피는 꽃'의 이하니가 최유화의 은밀한 사생활을 목격하면서 충격에 휩싸인다.

26일(오늘)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기획 남궁성우 / 제작 김정미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극본 이샘, 정명인) 5회에서는 조여화(이하니 분)가 백 씨 부인(최유화 분)의 들켜선 안 될 비밀을 알게 되면서 흥미진진함을 선사한다.

여화는 한밤중 백 씨 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마주하게 된다. 백 씨 부인은 모두의 모범이 되는 수절과부이기에 여화가 본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해 이들 앞에 벌어진 일이 더욱 궁금해진다.

여화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혼란에 빠진다. 여화를 혼란스럽게 만든 백 씨 부인의 비밀은 무엇일지, 여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것도 잠시 백 씨 부인의 속사정을 알게 된 여화는 그녀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그 가운데 여화와 백 씨 부인이 의견 차이를 보여 이 또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게다가 백 씨 부인의 사연은 영혼 집(김형목 분)의 사망 사건을 쫓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해 무한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밤에 피는 꽃' 제작진은 "5회 방송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그려진다. 여화와 백 씨 부인이 얽히고설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 5회는 26일(오늘)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미스트롯3' 역시 오유진! 최강자 배아현 꺾었다! 장운정 "얼마나 성장할까 두려워"

TV CHOSUN '미스트롯3' 오유진, 배아현이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도파민을 폭발시켰다.

지난 25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3' 6회는 전국 17%(닐스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최고 19.1%를 기록하며 브레이크 없는 시청률 폭주 기관차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는 6주 연속 지상파, 중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이자, 주간 전체 예능 적수 없는 1위 기록이다.

3라운드 1대 1 데스매치는 긴장감이 폭발했다. 2라운드 진이자 러블리 트로트퀸 오유진과 1라운드 진이자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이 칼을 빼들었다. 미리 보는 결승전과 같았던 두 사람의 대결은 방송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뜨거운 관심 속 오유진은 유지나의 '모란'을 선곡, 엄마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아 모두를 울렸다. 배아현은 나훈아의 '모란동백'을 주무기인 기교를 빼고 담백하게 불러 여운을 남겼다.

장운정은 "오유진은 못하는 게 없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까 두려움을 느끼는 가수"라고 칭찬했다.

이어 "기교가 짙은 보컬들은 기교가 빠진 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아현의 확장을 본 것 같다"라고 두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진 대진의 팽팽했던 데스매치 결과 오유진이 8대 5로 승리했다.

노련한 내용의 만연니들의 싸움은 박터졌다. 현역의 자존심 품공과 사이다 보컬 천가연이 1라운드에 이어 다시 만났다.

1, 2라운드 연속 올하트를 받았던 두 사람의 리턴 매치에 긴장감이 치솟았다. 품공과 천가연은 각각 한혜진의 '중로 3가'와 윤복희의 '왜 돌아보오'로 무대를 갖고

놀았다.

이찬련은 "마치 초대가수를 보는 듯한 완숙미와 노련함이 돋보였다"라고 품공의 관록의 무대에 주목했다.

이어 그는 "뒷부분에 힘을 주기 위해 앞부분을 약하게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천가연씨는 전조는 이럴 때 써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라면서 "만연니들의 대결은 차원이 달랐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천가연은 강력한 경쟁자인 품공을 9대 4로 꺾고 4라운드에 진출했다.

대이변의 연속이었다.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참가자들이 구력이 남다른 상대를 제쳤다. 언더독의 반란은 짜릿했고 감동적이었다. 2라운드 추가 합격으로 힘겹게 올라온 고막 여친 정슬과 2연속 올하트를 차지한 진주 손박 아가씨 채수현이 만났다.

정슬은 헤은이의 '제3한강교'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더해 자신의 진가를 보여줬다. 장민호는 "다음에도 찾아보고 싶은 무대"라면서 "안무를 하면서도 음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칭찬했다. 정슬은 채수현을 9대 4로 꺾고 4라운드 티켓을 차지했다.

대상 청소기 김나울의 도전은 마스터 군단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예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던 그는 정의송의 '육수수발'에 당신을 묻고'를 선곡해 새로운 감성 장인의 탄생을 알렸다.

박칼린은 "김나울은 가지고 있는 약기 연주를 잘한다"라면서 "판소리 기술을 잘 버무려 노래에 적용했고 파위가 있으며 강약 조절도 잘했다"라고 칭찬했다. 김나울은 목소리가 지문인 한여름과의 맞대결에서 10대 3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무대 위 아우라가 남다른 '더 글로리' 그녀' 양서윤은 내용이 탄탄한 트로트 새내

기 화연과의 맞대결을 펼쳤다. 양서윤은 어려운 노래인 송가인의 '무명배우'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4라운드에 올라갔다.

주격 트로트 창시자 이하린은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로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보여주며 트로트 꺾쟁이 슬기를 꺾었다.

트로트 탕탱볼 유수현은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를 선곡해 카리스마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뽐내며 반전의 충성 아가씨 송자영과의 대결에서 웃었다.

감정 계산이 완벽한 트로트 시 곡지은은 트리퍼스의 '정 주고 내가 우네'로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며 최항을 꺾었다.

'미스트롯3'는 현재 네이버 NOW. 앱에서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3주차 투표 집계 결과 '감성 천재' 빈혜서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러블리 트로트퀸' 오유진, 3위 '첫눈 보이스' 정서주, 4위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 5위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6위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7위 '나로호 6단 고을' 복지은이 TOP7에 올랐다.

한편 '미스트롯3'는 각종 인기 지표에서 1위를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월 조사까지 드라마와 예능 통틀어 전체 1위에 올랐다.

2020년 '미스터트롯1'을 시작으로 네 시즌 연속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1위를 달성하며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세상을 꺾고 뒤집을 TV CHOSUN '미스트롯3' 7회는 오는 2월 1일(목) 밤 10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고려거란전쟁' 하승리, 김동준 호족 가문 행차 사실에 '충격'



김동준의 호족 가문 행차 사실을 알게 된 하승리가 충격에 빠진다.

내일(27일) 밤 방송되는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극본 이정우 / 연출 전우성, 김한술, 서용수 / 제작 몬스터유니온, 비브스튜디오스) 21회에서는 현종(김동준 분)이 강감찬(최수종 분)을 데려오기 위해 금주 강씨 가문으로 행차했다는 소식을 접한 원성(하승리 분)이 격정에 휩싸인다.

앞서 현종은 안무사(고려시대 외관

직) 75명을 각지로 파견, 지방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호족들이 절반 이상의 안무사들을 개경으로 돌려보내며 첫 개혁부터 위기를 맞았다.

강감찬은 가문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가 있어야 가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수장들은 강감찬을 향해 칼날을 겨누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선사했다.

때마침 금주로 행차한 현종이 참수 위기에 놓인 강감찬을 구해내고, 지방 개혁 완수를 위해 호족 가문의 수장들

과 대면하게 된다.

오늘(26일) 공개된 스틸에는 원성이 아버지 김은부(조승연 분)와 함께 금주 강씨 가문으로 행차한 황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격정 가득한 얼굴의 원성은 안무사들마저 피투성이로 쫓겨 오고 있는 와중에 황제의 금주 행차를 왜 만류하지 않았냐고 아버지를 질책한다. 이에 김은부는 현종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고 하는데.

황제의 소식을 접한 원정 역시 자칫 현종에게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금주로 향한다.

또 다른 스틸에서 원성은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한 듯 동공 지진을 일으켜 김은부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짐작케 한다.

김은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원성은 쓸쓸히 수장궁을 빠져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과연 두 사람 사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또 원성의 평평 눈물을 흘린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21회는 내일(27일) 밤 9시 25분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평택의 강남' 브레인시티, 최고 자리 대장 아파트!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1월 26일 견본주택 개관

- ▶ 브레인시티 최종심 위치한 유일 학세권 아파트...초·중·고 모든 학군 도보권!
- ▶ GTX-A·C 연장 확정 수혜 '기대 만발'...브레인시티 최고입지 품은 대단지
- ▶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 전용 59㎡·84㎡ 총 1,182세대 규모

'평택의 강남' 브레인시티 대장 아파트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이 1월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브레인시티5피에프비이가 시행하고, (주)대광건설이 시공하는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 동, 전용 59-84㎡ 총 1,1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1,1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1,1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1,1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1,18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이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100% 민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주거 단지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과 상업·대학·의료시설이 어우러진 스마트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 퍼펙 캠퍼스'(2026년 예정), '아주대 평택병원'(2030년 예정) 등의 대형 개발 호재들도 예정돼 있어 향후 주거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브레인시티 유일한 학세권 아파트...카이스트, 아주대 병원 등 대형 개발 호재 수혜 '기대'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최고입지를 갖춘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브레인시티의 유일한 학세권 아파트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도보 거리에는 고등학교(예정)와 국립환경

대학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다. 이와 함께 근처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2026년 개교할 예정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문대가 가까워 경우 자녀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필 요하다면 카이스트 학생에게 자녀들이 양질의 과외를 받을 수도 있다.

대형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주대 평택병원'이 대표적이다. 아주대 평택병원은 스마트 수술실을 비롯해 로봇 의료장비·AI활용 입원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정보상황 통합관리 등 각종 의료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병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다양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주거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주목된다. 브

레인시티 인근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쇼핑·문화 시설이 자리해 있다. 또 고덕신도시에 형성된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은행·병원·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집적된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 SRT, KTX(예정)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삼성전자 등 첨단산업들 인접해 주택 수요 '풍부'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수도권 전철 1호선-SRT 평택지제역이 인접한다. 평택지제역은 오는 2025년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GTX-A·C 노선 연장 확정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먼저 GTX-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지제역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도심까지 20분대면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GTX-C 노선도 평택지제역을 지나가는 만큼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인근에 평



택전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평택동부고속도로(예정) 등이 자리해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풍부한 주택 수요도 예상된다. 주변에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첨단산업단지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까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반도체 라인을 총 6기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130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와 55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또 송탄일반산업단지, 철길일반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각종 첨단산업과의 거리의 인접하다. 관련 종사자들의 중심

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총 1,182세대 규모의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대광건설은 실내 테니스장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문화 시설을 갖춘 대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해 단지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 세대 전용 59-84㎡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해 실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4-8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남도, 도민체감 복지 강화! 시군 복지담당부서장과 추진방안 논의

26일 도·시군 복지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경남도는 1월 26일 오후 2시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2024년 복지정책사업 추진 협조와 도·시군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군 복지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 주재로 18개 시군 복지담당부서장들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도의 역점 복지사업과 지역별 복지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작년 11월 6일 출범한 경남행복복지재단 본격 활동 지원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제적부 등 열람 협조, 사회복지분야 지도·점검 협조 요청 사항 등으로 도는 사업이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도와 시군 부서장들은 정신질환, 은둔형 외톨이, 1인가구 증가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과 일상 돌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복지재단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 돌봄서비스 발굴 등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창원시와 김해시는 올해 처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사업 추진 시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김명숙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리"로 "올해 경남도와 노후우 등을 공유했다. 김명숙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흥시,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집중 점검... 시민 안전 확보

시흥시가 겨울철 화재 대응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설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 현장 점검'에 집중한다.

26일 정왕시장에서 이뤄진 합동점검에는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시흥시, 관계기관(시흥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단체(시흥시안전관리자문단, 정왕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왕시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시는 설 명절 전까지 관내에 소재한 5곳(삼미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시화공구상가, 시화유통상가)의 전통시장 및 대규모 상점가를 찾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화시설 확보 여부 ▲소화기·방화셔터 작동 여부 ▲전자기기 접지 상태 확인 ▲가스용

기 보관 실태 ▲가스차단기·경보기 작동 여부 ▲방화구획 유지관리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후에는 지적사항에 관해 시정조치와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상인회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및 홍보, 전통시장 화재 예방 점검, 화재 안전 정보 등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관계기관인 시흥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구해 합동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전통시장은 겨울철 화재에 더욱 취약하므로, 사전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그간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해왔지만,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공동주택 화재 예방·피해 최소화 홍보 총력

26일 목포에서 안전지도...피난·방화시설 상태 등 점검도

전남도는 26일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대형 화재 시 인명 안전과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관계자 화재안전지도 및 세대 특별 지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최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도민안전실, 소방, 민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 지도점검단은 아파트 관계

자 안전 지도 및 소방,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방송스피커 등 세대 내 소방시설 6종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사다리 등 세대 내 대피공간 관리상태 확인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대피방법 ▲위험사고 시 행동 요령 교육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알아두기 등이다.

전남도는 화재 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각 시설, 분야별 점검을 통해 아파트



화재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안전과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 시 무조건 대피하지 않고, 살펴서 대피하도록 피난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시, 한파에도 수도계량기 멀쩡...비결은 철저한 사전 대비

비상대책반 구성, 검침원의 집중점검 등 시설물 보전 나서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한파에 대비해 상수도 취수 시설물에 대한 사전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별다른 동파 피해가 없었으며, 동파 피해접수 시 당일 복구를 위한 민원처리반을 편성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는 동파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비상대책반 구성 △검침원의 동파취약지역 집중점검, 보온 조치 △새로넷방수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송출 △시청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SNS 홍보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파는 영하 10°C 이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계량기 보호통 안에 보온재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해야 하며, 장시간 외출 시에는 수도물을 조금씩 틀어 놓아야 한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경우에는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해 계량기 누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기온의 급강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한파에 대비해 보온 예방 조치를 하고 계량기 동파 시 즉시 시청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을 겪을 보내주세요.

계량기 동파신고 기간: 2023. 12. 1. ~ 2024. 3. 15.

계량기 동파신고: /☎ 480-4430, 4452 /☎ 480-6222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계량기함 내벽에 동파방지재 또는 보온재를 채워 밀착시켜주세요.
- 계량기함 내부에 동파방지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계량기함 내부에 동파방지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수도관을 얼어붙은 상태로 방치하지 마세요.
- 계량기 동파방지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계량기 동파방지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비상 12월 10일부터 다음해 2월 20일까지는 동파방지재로 인해 상수도 급수중단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확대...광주시, 홍보 강화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광주광역시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인부터 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체적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2021년1월26일 제정, 2022년1월27일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 부터 49인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적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교육한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시 민간위탁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규정·공모 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9일 오전에는 평동산단과 상가밀집지역인 광주중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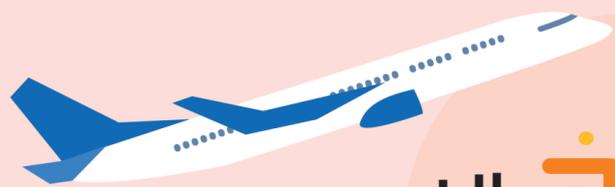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하는 것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 시행 전후로 홍보활동을 펼칠 헌선이 최소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병수/기자

2024년 새해에도 청송군의의회는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답례품 구입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경북교육청, 2024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발표

진단 체제 강화, 촘촘한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운영 길라잡이 제공 임종식 교육감,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이 책임 있게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26일,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보장 계획은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의 책임 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따뜻함으로 모두를 위한 경북 기초학력'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다각적 진단 체계 구축 ▲촘촘한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반 구축 ▲모두의 교육결손 해소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진단 체계를 강화하여 다각적인 진단을 시행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겨울방학(학년말) 기간 중 학습 공백기를 극복한다.

이에 더해, 심리·정서 역량 검사를 체계화하여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되는 정서적 문제도 해소한다.

또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사다리 교실을 학년당 1개 학급 이상 편성하고 ▲기초학력 오름 학교 ▲1수업 2교사제 등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지원방안 정책연구, 운영 길라잡이 제작·안내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다.

특히 교육결손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학습 관리 ▲학습 튜터링 ▲학습 도약 계열 학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 기초학력 부진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초학력이 책임 있게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학교자율경영의 지혜로 미래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선 예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학교자율경영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학교자율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예천군 내 유치원장, 초·중·고 학교장, 예천교육지원청의 관계자 등 총 2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일 동안 대구팔공초등학교와 부산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학교 공간 혁신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독서 환경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등 선진지 탐방 연수에 큰 의미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예천미래교육

지구의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학교의 자율 경영 방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고 생태 교육 현장체험학습지 발굴을 위한 답사를 하였다.

이창희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자율경영의 중요성을 깨달아 학교장이 학교 교육의 중심 역할을 잘 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일/기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을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의 기회를!

의성교육지원청, 2024년 1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수), 의성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2024학년도 신규 선정을 받기 희망하는 학생 4명, 순회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학생 5명, 타 시도에서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생 2명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서면 심사를 통해 심의하였으며 2024학년도 의성에 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7명에 대한 배치 또한 심의했다.

의성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성공적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 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적절한 지원 인력 제공,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태동 교육지원과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교육청, 도서관 중장기 발전에 2,400억 투입

함께 읽고 성장하는 모두의 도서관으로 발돋움 임종식 교육감, "경북도민 누구나가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문화복지를 제감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2024~2028 경북교육청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중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장서 확충 ▲공동보존서고 설치 ▲청소년 메이커 공간 구축 ▲해의 도서관 등으로, 5년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지식정보의 확장'과 미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4대 전략, 10개 정책과제, 27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5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영덕·영양도서관 ▲2025년 예천도서관 ▲2026년 포항·영천·칠곡도서관 ▲2027년 구미도서관 ▲2028년 김천·경주도서관 등 총 9개 도서관에 대한 신설·이전 건립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도서·전자책·전자정보 등에 매년 55억여 원, 총 277억 원을 투입해

장서를 확충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 시스템 구축 ▲미래 기술 체험 공간 ▲미디어 창작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인문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행복 시(詩) 콘서트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인문학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장애인·다문화·어르신·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서관 종합 발전 계획을 계기로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자료를 확충해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터를 만들겠다"라며, "경북도민 누구나가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문화복지를 제감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의 문화복지를 제감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미래교육지구 마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 영주교육지원청, 문경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답사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금), 영주미래교육지구 실무위원회 위원과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문경미래교육지구를 답사했다.

2024년 영주미래교육지구의 본격적인 시동을 위해 미래교육지구 운영 2년 차에 접어드는 문경 마을학교의 실제 운영 모습을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찾아 영주의 마을학교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제할 예정이다.

문경 동성마을학교와 단디마을학교의 마을교사와 만남을 통해 마을학교의 교사가 된 과정과 보람, 사업 초기의

어려운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학교의 지역연계 돌봄과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영주시와 영주교육지원청은 도심지와 면 단위의 지역 거점시설을 찾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와 학생교육활동에 뜻있는 마을주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영주시가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의 미래역량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적인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미래교육지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금자/기자



경남교육청, 개학 대비 감염병 관리 방안 협의회 개최

감염병 전문가, 학교 관계자 등 참석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 모색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제2청사에서 경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의사협회, 교육지원청, 학교 등 감염병 및 방역담당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 대비 감염병 관리 방안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2024학년도 감염병 세부 추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감염병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각 학교에서 감염병 발

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법을 모색했다.

하정화 체육예술포술건강과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새 학기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해 유치원과 학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강릉 9경 9미 9품 [장흥 대표 볼거리·먹거리·살거리]

9경 장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보림사, 천관산, 소등섬, 제암산, 선학동마을, 탐진강, 정남진 전망대

9미 꼭 먹어야 할 장흥 별미

장흥삼합(한우+표고버섯+키조개), 매생이탕, 된장물회, 하모사부사부, 키조개요리, 갑오징어 회 · 먹핀, 향칠백숙, 굴구이, 바지락회무침

9품 자연이 선사한 특별한 선물

표고버섯, 햇개, 무산김, 친환경쌀(아르미), 청태전, 향칠, 매생이, 한우&육포, 낙지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